

한국 내 언어교육기관의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 다양화에 대하여

-서울대학교 언어교육원 한국어교육센터를 중심으로-

이정화*

국문초록

본 논문은 한국 내에서 실시하고 있는 다양한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을 소개하는 데 주요한 목적이 있다. 한국 내 언어교육기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한국어 교육 역사는 어느덧 60년 이상 되었으며 지난 60여 년 동안 한국어 교육 기관과 학습자의 수가 물리적으로 늘어났을 뿐만 아니라 교육 프로그램이 전보다 많이 다양화된 것을 볼 수 있다.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의 다양화의 방향은 크게 다음의 세 가지로 정리될 수 있다.

첫째, 고급 수준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이 강화되는 경향을 보인다. 토픽시험의 최고급 수준인 한국어 6급을 합격하는 수준에 만족하지 못하고 그 이상의 한국어 수준을 원하는 학습자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6급 수준을 넘는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들이 개발되고 있다. 둘째, 학습 동기와 교육 목적이 다양화됨에 따라 특수 목적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특수 목적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은 주로 위탁 기관과의 협업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위탁 기관들의 요구가 전보다 다양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셋째, 정규 프로그램 외에 선택반을 운영하거나 앱이나 온라인 영상 등을 제공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이는 학습자의 세세한 요구나 학습 능력 차이를 보완해 줄 수 있는 프로그램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한 결과로 볼 수 있다.

* 서울대학교 언어교육원 대우교수

이상의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의 다양성 검토를 통해 그간의 한국어 교육의 발전 과정을 살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나아갈 바를 고찰할 수 있다.

주제어: 한국어 교육, 고급 수준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 특수 목적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 교육 목적 다양화, 선택반

차례

- | | |
|---------------------|----------------------------|
| 1. 한국어 교육의 발전 | 3. 한국 내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의 발전 방향 |
| 2. 한국 내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 | 4.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발전 방안 |

1. 한국어 교육의 발전

한국 내 언어교육기관에서 본격적으로 한국어 교육을 시작한 것은 1959년 연세 한국어학당을 시초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며 그를 기준으로 하면 한국어 교육은 어느덧 60여 년의 역사를 가지게 되었다. 그동안 학습자 수의 증가, 학습자 국적의 다양화, 언어교육 기관의 확대, 교재 개발, 교수법 개발 등 어느 부분을 이야기해도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루어 내지 않은 분야가 없다. 그 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한국어 학습자의 저변이 확대되었다는 점이다. 이제 한국어는 더 이상 동양의 이름 모를 국가에서 사용하는 낯선 언어가 아닌 세계 어느 곳에서도 학습 가능한 세계 10위 수준의 사용자를 갖고 있는 언어로서 당당히 자리매김한 것이다.

서울대 한국어교육센터의 경우만을 살펴보더라도 학습자의 국적 변화가 눈에 띈다. 한국어교육센터의 시작은 1969년부터지만 별도의 건물을 가지고 본격적으로 언어교육 기관으로 발전한 것은 1993년부터였다고 볼 수 있다. 다음은 1995년, 2005년, 2015년, 2020년, 2023년 현재 학습자들의 국

적 수를 비교한 것이다.

〈표 1〉 서울대 한국어교육센터 학습자 변화

년도	1995년 봄	2005년 봄	2015년 봄	2023년 봄
학습자 수(명)	105	397	1065	1238
국적 수(개)	25	40	79	92

위의 표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초기에는 인접 국가들의 학생이 주류를 이루면서 학습자의 국적이 다양하지 않았던 것에 반해 현재는 전 세계에서 다양한 국적의 학생들이 한국어를 배우러 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비단 서울대만의 현상이 아니며 한국어가 더 이상 낯선 언어가 아니라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1990년대에 들어오는 입국자들의 대부분은 1급 학생들이었으며 고급 수준의 학습자들이 드물었기 때문에 학습자의 구성이 피라미드 모양을 이루었던 데 반해 현재는 입국 전에 본국에서 초급을 일부라도 배우고 들어오는 경우가 많아지고 고급 학습자들의 수가 많아지면서 학습자 구성에 변화를 보이고 있다.

〈표 2〉 서울대 한국어교육센터 학습자 급별 비율 변화

학기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연구반
2014년 가을	24%	19%	19%	16%	13%	6%	4%
2024년 여름	10%	18%	19%	20%	15%	9%	9%

위의 표에서 1급 학습자 비율이 줄고 연구반 학습자 비율이 크게 증가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 한 가지 눈에 띄는 변화는 고급 수준의 서양권 학습자들이 증가했다

는 것이다. 일본, 중국 학습자가 주류를 이루던 2000년 대 전까지의 시기에는 서양권 학습자들은 천천히 배우는 학생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었으며 고급까지 공부하는 경우 또한 지극히 드물었다.¹ 그러나 현재 서울대 한국어 교육센터의 최고급 수준 반이라고 할 수 있는 연구반 학습자의 구성만 보더라도 국적이 정말 다양해졌음을 알 수 있다.²

〈표 3〉 서울대 한국어교육센터 연구반 학습자 변화

년도	2001년 여름	2015년 여름	2022년 여름	2024년 여름
학습자 수(명)	12	22	54	74
국적 수(개)	6	6	17	26

2. 한국 내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

한국 내 한국어 교육기관의 주요한 프로그램인 정규 프로그램은 대동소이하다고 볼 수 있으나 기관의 규모에 따라 프로그램 다양성에는 차이가 있다. 놀랍게도 지금의 주 20시간 2년제 시스템은 연세대학교의 한국어학당 초기시절부터 정해져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백봉자(2019)에 따

- 1 이선웅·이정화·서경숙(2022:193)에 따르면 어휘 오류율이 급격히 늘어나는 시기는 3급과 5급인데 이는 중급과 고급으로 넘어가는 시기에 한자어가 늘어나고 어휘 수가 급격히 증가하기 때문으로 추정할 수 있다. 10여 년 전만 해도 한자 어휘의 폭발적 증가로 4급에서 학습을 포기하는 서양권 학습자들을 많이 볼 수 있었다.
- 2 2024년 여름학기 기준으로 연구반 등록자의 국적을 자세히 살펴보면 대만, 독일, 러시아, 몽골, 말레이시아, 미국, 베트남, 벨기에, 벨라루스, 스웨덴, 싱가포르, 영국, 우즈베키스탄, 이란,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조지아, 중국, 홍콩, 캐나다, 키르기스스탄, 태국, 튀르키예, 프랑스, 필리핀 총 26개국 학생들로 유럽에서 온 학습자들의 비중이 높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르면 연희전문을 세운 기독교 연합체인 합동위원회(Joint Committee)는 한국어학당의 설립 과정에서 상당한 역할을 하였는데 설립 당시 학교 수업은 오후 1시부터 4시간씩 주 5일 20시간 과정을 이수하고, 1년 3학기로 2년 과정을 거쳐 6급을 마치면 졸업하는 것으로 정하였다. 60년 전에 정한 정규 과정 시수를 현재에도 거의 그대로 준수하고 있다는 것이 놀랍다. 한국어 교육의 경험이 거의 없던 시절이었음에도 일정 수준의 숙달도에 이르는 데 필요한 시간에 대한 성찰이 정확했다고 볼 수 있다.³

한국 내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은 크게 일반목적 한국어를 집중적으로 교육하며 어학 비자를 발급하는 정규과정과 특수한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위탁과정, 정규과정이나 위탁과정을 보완하기 위한 특별수업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2.1. 정규과정

1) 어학 비자 제공 과정

어학 비자를 제공하는 정규과정 수업은 통합적인 의사소통 능력 향상을 목표로 하는 연중 상설 프로그램이다. 서울대학교 한국어교육센터 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기관에서 하루 4시간 주 5일, 한 학기 200시간으로 운영되고 있다. 한국어 숙달도 수준에 따라 1급부터 6급까지 운영되고 있으며 토익시험과 마찬가지로 숫자가 높아질수록 높은 수준을 말한다. 서울대 한국

3 대부분의 정규과정 프로그램을 6급까지라고 생각하면 현재는 1년 6개월에 졸업하게 설계되어 있으므로 당시보다 기한이 짧아진 것으로 보이나 6급까지 공부한 이후 학문 목적 또는 직업 목적 심화를 원하는 학생들이 연구반에 진학하여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심화과정을 이수하고 있으므로 거의 동일한 기간이라고 볼 수 있다. 초기 선교사들은 한국어를 배우고 나서 한국어로 설교하기를 원했다고 하니 현재 연구반 수준의 숙달도를 원했던 것으로 보인다.

어교육센터의 경우 1969년 개원 당시부터 오전반으로 시작하여 지금까지 오전 수업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나 학습자의 편의를 위해 2007년부터는 오후반도 개설, 오전과 동일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홈페이지에 명시된 각급의 교과과정 목표는 다음과 같다.⁴

한국어 1급: 한국어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는 성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여 일상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의사소통능력을 기르게 합니다.

한국어 2급: 200시간의 한국어 교육을 받았거나 그에 준하는 한국어 능력을 가진 성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여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의사소통능력을 기르게 합니다.

한국어 3급: 400시간의 한국어교육을 받았거나 그에 준하는 한국어 능력을 가진 성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여 일상적인 사회활동에 필요한 의사소통능력을 기르고 한국 문화를 접할 수 있게 합니다.

한국어 4급: 600시간의 한국어교육을 받았거나 그에 준하는 한국어 능력을 가진 성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여 다양한 사회 활동에 필요한 의사소통능력을 기르고 한국의 전통 문화를 체험하게 합니다.

한국어 5급: 800시간의 한국어교육을 받았거나 그에 준하는 한국어 능력을 가진 성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여 언어생활에서 불편 없이 의사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한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하여 폭넓은 지식을 가지게 합니다.

4 교과과정 목표는 서울대 언어교육원 한국어교육센터 홈페이지에 실린 것을 그대로 가져온 것임을 밝힌다.

한국어 6급: 1,000시간의 한국어교육을 받았거나 그에 준하는 한국어 능력을 가진 성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여 사회생활에 필요한 한국어를 유창하게 구사할 수 있게 하고 한국의 역사, 문화에 대하여 깊이 있는 지식을 가지게 합니다.

이상이 정규 6급까지의 교과과정 목표라면 최고급 수준이라고 할 수 있는 연구반의 경우 운영 방식이나 교과과정 목표가 조금 다르다. 연구반은 2001년 9월에 6급 수료 후 대학이나 대학원에 진학하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심화과정으로 개설하였다. 초기에는 주 5일, 1일 2시간으로 운영하던 것을 2004년부터 현재와 같이 1일 4시간, 주 4일제로 운영하고 있으며 이 과정 역시 비자를 제공하고 있다. 초기에는 학문 목적 학습자에게 초점을 맞추어 교육하였으나 점차 일반목적 또는 직업 목적 학습자들의 요구로 2017년 9월부터는 학문목적반과 실용목적반으로 나누어 운영하고 있다.⁵

연구반: 1,200시간(정규반 6급 수준 이상)의 한국어교육을 받았거나 그에 준하는 한국어 능력을 가진 성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여 학업 수행 및 취업 시 필요한 한국어 능력을 갖추고 한국 사회 및 문화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게 합니다.

서울대 한국어교육센터의 연구반은 실제 한 학기 160시수로 운영되지만 봄, 가을학기 외 여름, 겨울 학기에 교과과정이 달라 두 학기를 수강하는 학

5 학문목적반과 실용목적반의 가장 큰 차이는 쓰기 수업을 다르게 운영한다는 것이다. 학문목적반의 경우 보고서, 소논문 쓰기에 집중하는 반면 실용목적반의 경우 읽기 자료를 기반으로 하여 취업용 자기소개서, 이메일, 공고문, 수필 등 좀 더 실용적인 글쓰기를 하고 있다.

생들도 많다. 또한 정규 6급까지의 한국어 수업 교재가 기능 통합형 교재인 것과 달리 연구반에서는 말하기, 듣기, 쓰기, 읽기 네 영역으로 기능 분리된 교재를 사용하고 있다.

서울대 한국어교육센터 연구반과 같은 심화과정으로는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의 최고급 한국어과정을 들 수 있으나 하루 2시간, 주5일 한 학기 100시간으로 운영되고 있어 비자를 받을 수 없다는 점에서도 차별점이 있다. 이는 연세대학교의 경우 대학한국어라는 과정을 따로 개설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연세대학교의 대학한국어 프로그램은 정규 수업과 같이 모두 6개의 급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범용 한국어 교재와 다른 주제나 기능을 대학생활에 맞추어 설계한 대학생활을 위한 한국어라는 교재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징적이다. 고려대의 경우도 연세대와 같이 학문목적 한국어 학습자와 일반목적 한국어 학습자를 분리하여 가르치고 있다. 학문목적 학습자를 위한 수업을 오후에 개설하고 발표, 토론, 보고서 작성 등을 심화하고 있으며 주교재는 동일하다.

2) 어학 비자 비제공 과정

2023년 현재 서울대 한국어교육센터에서는 어학 비자를 제공받을 필요가 없는 한국 내 입국자 또는 해외 체류자를 대상으로 하는 한국어교육 프로그램으로 저녁반, 13주 한국어 과정, 온라인 3주 집중 연수 과정 등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2001년 교내 외국인 교수와 직원을 위해 처음 개설한 저녁반은 초기에는 일정 기간 4급까지만 운영되다가 학습자들의 요구에 따라 6급까지 확대되었다. 하루 3시간, 주 2회 10주를 운영하는 수업으로 한 급에서 60시간의 한국어 수업이 이루어진다. 홈페이지에 소개된 저녁반 프로그램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저녁반: 성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여 일상생활에 필요한 한국어 의사소통능력을 기르게 합니다. 한 학기는 10주씩 1년에 4학기제로 운영되며 1급에서 6급까지 개설되어 있습니다. 사랑해요 한국어(I LOVE KOREAN) 1~4권으로 공부하는 기존의 저녁반 프로그램과 함께, I LOVE KOREAN 5~6권 교재로 공부하는 중급반도 개설되었습니다. 일상생활에 필요한 한국어 능력뿐 아니라 중급 수준의 한국어 능력을 키우고자 하는 학습자들도 저녁반 과정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서울대에 재학하는 외국인 학생들이 아닌 외부에서 오는 학습자들의 이동에 대한 어려움 해소 등을 해소시켜 주기 위하여 2023년 봄학기부터는 온라인 저녁반을 운영하고 있다. 이는 코로나 기간에 축적된 온라인 수업에 대한 노하우를 가지고 확장한 수업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처음 개설 당시 15주로 운영되었으나 현재는 13주로 축소 운영하고 있는 13주 한국어 과정의 가장 큰 특징은 부담 없는 학습량으로 배운 내용을 충분히 익히고 사용하게 하고자 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비자가 필요 없고 수업에 대한 큰 부담을 원치 않는 교환학생 등이 주요한 학습자 층이다. 홈페이지에 소개된 13주 과정 프로그램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13주 한국어 과정: 13주 한국어 과정은 교환학생(및 비자를 소지한 일반인 학습자들)의 요구와 특성에 맞춘 프로그램입니다. 부담 없는 학습량으로 배운 내용을 충분히 익히고 사용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본 과정은 1년에 2번, 봄·가을 학기에 13주간 운영됩니다. 한국어 수업은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를 종합적으로 향상시키는 통합프

로그래밍으로 이루어지며, 단기 과정용 교재인 사랑해요
한국어(I LOVE KOREAN) 1~4, I LOVE KOREAN
5~6권을 교재로 사용합니다.

다음으로 온라인 3주 집중 연수 과정은 두 가지 점에서 특징이 있다.⁶ 우선 수업을 실시간 온라인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시차가 문제되지 않을 경우 외국에서도 수강 가능하다는 점이다. 또한 집중 연수라는 점이 특징적인데 정규 과정보다 시수를 늘려 가르친다는 의미가 아니라 저녁반 수업에서 10주에 나가는 수업을 3주 과정에서 모두 나간다는 점에서 집중 과정이라고 부르고 있다.

온라인 3주 집중 연수과정: 서울대학교 언어교육원의 수준 높은 한국어 강의를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성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일상생활에 필요한 의사소통 능력을 기르게 합니다. Zoom 프로그램을 이용한 실시간 화상 강의, 소그룹 활동 등 교수자, 학습자 간의 활발한 상호작용,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한 Q&A와 과제 피드백 등이 이루어집니다.

6 주로 여름 학기를 이용해 한국에 들어오는 교포 자녀들을 대상으로 개설되었던 3주 단기, 5주 단기 프로그램 등이 활발히 운영되어왔으나 코로나 팬데믹의 여파로 현재는 운영하지 않고 있다.

2.2. 위탁과정

위탁과정은 한 학기 10주인 정규 한국어 과정과는 다른 기간 또는 특별한 목적의 한국어 수업을 원하는 기관의 위탁을 받아 이루어지는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이다. 지금까지 서울대학교 한국어교육센터에서 운영한 위탁과정 프로그램은 수십 여 가지에 이르나 그 중 가장 대표적인 프로그램 3개를 골라 소개하고자 한다.⁷

1) 말레이시아 정부 장학생반

말레이시아 프로그램은 고등학교 과정을 마친 말레이시아 정부 장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한국 소재 공과 대학 진학에 필요한 한국어 능력을 배양하는 교육 프로그램이다. 1984년 말레이시아 정부의 'Look East Policy(동방정책)'의 일환으로 말레이시아 정부 장학생을 위한 한국어 위탁 교육이 시작되었다.⁸ 이 프로그램은 1년 8개월 과정으로 말레이시아 현지에서 약 8개월 동안 기초 한국어교육을 받고 한국에 들어와 남은 기간 동안 중고급 수준의 한국어와 함께 기초 수학과 공학 수업을 병행하여 전공에 필요한 기초 지식을 갖추게 된다. 또한 한자, 발음, 말하기, 컴퓨터 수업 등 여러 가지 특화 수업을 병행하여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현재까지 500명 이상의 학생들이 한국 내 공학 대학에 진학하였다.

7 위탁 과정의 경우 위탁을 의뢰한 기관에서 원할 경우 출강을 해 주기도 한다.

8 1984년부터 1997년까지 14년 간 3월에 학기가 시작하는 1년 과정으로 운영되다가 IMF 사태의 영향으로 1998년부터 2000년까지 일시 중단되었다. 2000년 9월에 교육이 재개되어 1년 6개월 과정으로 운영되다가 2004년부터는 연수생들이 본원에서 파견된 강사에게 한국에 들어오기 전에 말레이시아 현지에서 3개월 간 추가 교육을 받게 되었다. 2007년부터 다시 1년 8개월 과정으로 변경되어 말레이시아 현지에서 8개월 간 초급 한국어 교육을 받고 들어와 3월부터 1년 간 중,고급 수준의 한국어와 기초 수학, 기초 공학 수업을 병행하는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았다.

말레이시아 정부 장학생반의 가장 큰 특징은 한국어 외에 수학, 과학, IT 등 대학 수학에 필요한 다른 과목을 교육하고 있다는 점이다. 전공자들의 강의로 진행되며 강의는 한국어를 중심으로 하되 필요시 영어를 사용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다.

2) 일본 게이오대 단기연수 프로그램

1992년 8월에 시작하여 현재까지 30년 이상 이어오고 있는 단기 연수 위탁 프로그램이다. 게이오대학교에서 한국어를 수강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매년 봄과 여름 3주 동안 개설된다. 한국어 수업과 함께 다양한 한국문화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며 서울대 학생 TA가 학습과 문화 체험 활동을 도와 주고 있다. 일본 내의 한국어 수업과 달리 한국어 몰입 수업을 지향하며 다양한 말하기 활동과 기회를 최대한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3) DLI(Defense Language Institute) 한국어 집중 연수 프로그램

DLI 한국어 집중 연수 프로그램은 미국 국방외국어대학교(DLI)에서 일정 기간의 한국어 학습 과정을 마친 학생들이 6주 동안 한국에 와서 생활하며 한국어를 더욱 깊이 익히고, 한국의 사회, 문화를 경험하고 배우는 프로그램이다. 학생들은 다양한 문화 체험 외에도 한국인 가정에서 홈스테이를 하며 한국인의 생활을 직접 체험하는 기회를 갖는다. 또한 서울대 재학생 버디와 교류를 통해 한국인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한다. 2011년 가을 학기에 시작되어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는 프로그램으로 일 년에 여러 차례 진행이 되고 있다.

DLI 프로그램의 가장 큰 특징은 이머전 프로그램이면서 내용중심 교육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물론 정규 프로그램에 들어와 있는 학생들도 몰입 교육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수업 후의 환경에서 한국어를 사용할지의 여부

는 선택적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DLI 프로그램에서는 버디 매칭, 교사와 1:1 자유 말하기, 외부 인사 초청 간담회 등을 통해 한국어를 쓸 수 있는 장치를 충분히 마련해 두고 있다.⁹

2.3. 특별 수업

학문목적 학습자와 일반목적 학습자의 수업을 구분해서 운영하고 있는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 등 일부 언어교육기관을 제외한 대다수의 기관들은 초급에서는 일반목적 학습자를 가정하고 4급부터는 잠재적 학문목적 학습자라고 보고 교육을 하고 있다. 실제로 4급의 같은 반에서 수업을 듣는 학습자들의 학습 동기를 살펴보면 한류에 대한 관심, 대학 또는 대학원 진학, 부모님 중 한 분이 한국인, 언어를 배우는 것이 취미 등 다양한 학생들이 섞여 있다. 언어 숙달도를 높이는 것이 공동의 목표라고는 하지만 학습자의 학습 동기에 따라 요구가 다르기 마련이다. 이러한 학습자들의 다양한 요구가 수업 중에 전부 충족되기에는 어려움이 있기에 개개인의 필요성과 숙달도 차이를 보완해 주기 위한 특별 수업이 필요하다.

서울대학교 언어교육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특별 수업은 유료 수업과 무료 수업 두 가지가 있다. 개인의 요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수업인 발음반, 한자반, 토픽반은 유료로 운영하고 있으며 학습자의 숙달도 차이를 보완시켜 주기 위한 초급 한글 자모반, 기초 문법반은 무료로 운영하고 있다. 연세대 한국어학당의 요리 수업, 케이팝 댄스 프로그램이나 고려대학교 한국어 센터의 태권도 동아리, 춤 동아리 등은 한국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취미

9 DLI 프로그램의 교수법적 특징은 이정화(2023) 국제한국어교육학회 제33차 국제학술대회 주제토론문 “교수법시대 이후의 교수법-서울대학교 언어교육원 한국어교육센터 특별프로그램을 중심으로”에서 좀 더 자세히 소개하였다.

프로그램이라는 점이 서울대 한국어교육센터의 특별 수업 프로그램들과 다르다.

1) 발음반

모든 급의 수업에서 발음 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교실에서는 발음 연습에 충분한 시간을 할애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아 한국어 발음을 어려워하는 학습자의 발음을 교정해 주기 위한 특별한 수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개설한 수업이다. 발음은 그 어떤 것보다 모국어의 영향이 크며 학습자의 개인차가 크기 때문에 언어권별 대조 분석 자료를 이용해서 학생의 발음을 정확하게 교정해 주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¹⁰

2) 토픽 준비반

한국어능력시험(TOPIK)에 응시하는 학생들이 늘어나면서 토픽 대비반을 개설해 줄 것을 요청하는 학생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2011년에 토픽 준비반을 개설하게 되었다. 토픽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도록 문제 유형을 연습하는 수업으로 중급반과 고급반으로 나누어 운영하고 있다. 중급반은 3, 4급의 재원생을 대상으로 한국어능력시험 중급에 필요한 문법을 정리해 준다. 어휘 및 문법, 쓰기, 듣기, 읽기 영역의 문제 유형을 익히며 어휘는 반의어, 유의어, 다의어 등을 중심으로 정리해 주는 수업이다. 고급반은 5, 6급 재원생을 대상으로 한국어능력시험 고급을 준비하는 수업으로 쓰기 주관식 문항 연습을 중심으로 하고 어휘 및 문법, 쓰기, 듣기, 읽기 영역의 문제 유형을 익힌다.

10 2000년 여름 학기부터 시작된 발음반의 노하우와 자료들을 모아 2006년에 한글파크에서 <한국어발음 47>을 출간하여 현재까지 발음반 교재로 사용하고 있다.

3) 한자반

한국어 어휘의 한자어 비율이 높기 때문에 한자를 이해하는 것은 어휘력 신장에 큰 도움이 된다. 특히 한자어 어휘가 급격이 늘어나는 4급부터는 한자를 이해하는 학생들의 어휘 습득이 훨씬 더 용이하다. 최근에는 서양권 학습자들의 경우에도 한자에 대한 이해가 깊은 경우를 종종 보게 된다. 이는 한국어 학습에서 한자 학습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는 학습자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해 준다. 한자반은 기초반과 중급반으로 나누어 수업을 하는데 기초반의 경우 기초 한자의 음과 뜻을 알고 간단한 문장을 읽고 쓸 수 있도록 하는 연습을 위주로 한다. 중급반의 경우 한국어 학습에 필요한 한자를 심층적으로 학습하고 배운 한자를 활용하여 한국어 고급 어휘를 확장하여 익힐 수 있도록 하고 있다.¹¹⁾

4) 한글, 문법 무료 특강반

다른 특별 수업과 달리 무료로 진행되는 특강반이다. 다른 특강반들은 학습자의 필요나 요구에 의해 만들어졌다면 한글, 문법 특강반의 경우 같은 급에 배치된 학생들의 숙달도 차이를 보완하기 위해 만든 반이라는 점에서 차별적이다. 완전 초급이라고 할 수 있는 1급에 배치되는 학습자들이 대부분 한글을 읽고 쓸 수 있는 수준으로 들어오고 있어 자모를 전혀 모르는 학습자들이 수업을 따라가기 버거운 경우가 있고 1.5급의 수준으로 2급에 배치되는 학습자의 경우 1급의 기본 문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보충해 줄 필요가 있기 때문에 만든 수업이다. 완전 초급 학습자들의 보충 수업으로 기획되었기 때문에 필요시 학습자의 모국어로 도움을 주고 있다. 2018

11 교재는 언어교육원에서 개발한 Useful Chinese for Learners of Korean(2011년 다락원 출판)을 사용해 왔으며 최근에(2022년) Useful Hanja for Learners of Korean이라는 이름으로 개정판을 발간하였다.

년에 처음 만들어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다.

3. 한국 내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의 발전 방향

3.1. 고급 수준 수업의 강화

1장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한국어 학습자의 변화에 대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가장 큰 변화는 고급 수준의 한국어 학습자의 수가 급격히 늘어나고 학습자의 국적이 다양해졌다는 것이다. 일본, 중국 국적의 학생들이 고급 학습자의 주류를 이루었던 과거와 달리 미국, 독일, 프랑스, 태국, 베트남, 인도 등 한국학을 전공하는 학습자들의 국적도 매우 다양해진 것을 체감할 수 있다. 최고급 수준 한국어 수업인 서울대학교 한국어교육센터의 연구반의 경우도 지원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연구반까지 수료를 마치고 한국어교사양성과정 수업을 수강하는 학생들도 심심찮게 마주할 수 있다.¹²

고급 수준 한국어 학습자의 증가와 발맞추어 일어난 변화는 첫째, 교재가 전문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연세대의 경우처럼 교재를 일반목적과 학문 목적으로 이원화하는 기관들도 생기고 서울대 한국어교육센터의 경우처럼 6급까지 사용하고 있는 기능 통합형 교재와 차별적인 기능 분리형 교재를 집필하여 사용하고 있는 경우도 많다. 둘째, 학습 목적에 맞추어 교과과정을 수정하여 운영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연세대의 경우처럼 학습 목적

12 서울대학교 한국어교사양성과정 수업은 2005년도에 시작되었으며 최근 3년 간 양성과정을 수료한 수강생을 살펴보면 외국 국적 학생들이 2022년 총 7명(18.4%), 2023년 총 12명(22.6%), 2024년 현재 총 8명(19.5%)로 약 20%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에 따라 다른 교재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수업 운영을 다르게 하여 학습자의 학습 목적에 최대한 맞춰주고 있다. 서울대 연구반의 쓰기 수업을 학문 목적 쓰기와 실용문 쓰기로 나누어 운영하고 있는 것도 학습자의 학습 목적을 교과과정에 반영하기 위함이다.

3.2. 특수 목적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 강화

한국어 학습자의 수가 증대하면서 필연적으로 학습 목적 또한 다양화되었다. 이에 따라 정규반에서 이들의 다양한 요구를 받아들이기 어렵기 때문에 맞춤 프로그램을 만들어 운영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특수 목적 한국어 프로그램의 특징은 Kumaravadivelu(2006)에서 밝히고 있는 교수법 후기 시대 거시전략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를 프로그램에 많이 넣고 있다는 점이다.¹³ 일본 게이오 대학 연수 프로그램이나 말레이시아반 정부 장학생 프로그램과 같이 동일 언어권의 학습자들이 맞춤 프로그램을 요청하는 경우, 외교관이나 스포츠 행정가, 군인과 같은 특정 직업군의 연수 프로그램을 요청하는 경우, 언어보다 문화를 중심으로 수업하기를 원하는 그룹 등 다양한 요청에 맞추어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있으며 이렇게 개설한 프로그램이 정

13 Kumaravadivelu(2006)에서 밝히고 있는 교수법 후기 시대 거시전략은 ① 학습 기회 극대화하기(Maximize learning opportunities) ② 인식상 불일치 최소화하기(Minimize perceptual mismatches) ③ 협상된 상호작용을 촉진하기(Facilitate negotiated interaction) ④ 학습자 자율성 촉진하기(Promote learner autonomy) ⑤ 언어 인식 촉진하기(Foster language awareness) ⑥ 직관적 발견적 교수법 활성화하기(Activate intuitive heuristics) ⑦ 언어 입력을 맥락화하기(Contextualize linguistic input) ⑧ 언어 기술 통합하기(Integrate language skills) ⑨ 사회적 관련성을 보장하기(Ensure social relevance) ⑩ 문화적 의식 높이기(Raise cultural consciousness) 이상의 10가지이다. 이중 학습 기회를 극대화하기 위한 장치나 사회적 관련성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 문화적 인식을 높이기 위한 장치 등을 일반목적 프로그램보다 활발히 사용하고 있다.

기적인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게 되는 경우도 많다.

3.3. 학습자 수준 차를 줄이기 위한 방안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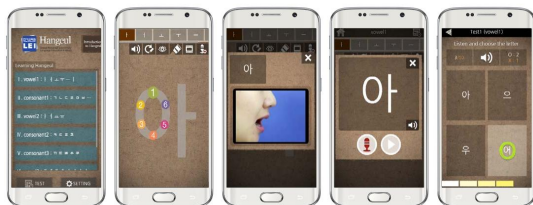
숙달도를 기준으로 학생의 수준에 맞는 급에 배치를 한다고 하여도 동일 급 내에 수준 차이가 생기기 마련이다. 이러한 수준 차이는 개인의 학습 능력 차이에서 기인하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경우 배치될 때부터 수준 차이가 나는 경우도 많다는 것이 문제다. 이들의 수준 차이를 줄여야 교실 내 의사소통도 활발해지고 성공적인 성취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위한 방안을 간구하고 있다.

1급에서 자모 습득에서 어려움이 이후 학습 부진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무료 자모반을 운영하는 것이나 연세대 어학당에서 온라인 한국어 강의를 무료로 제공하는 것도 숙달도 차이를 줄이기 위한 방안이다. 이런 방안들은 주로 초급 학습자를 위해 마련되는데 중급 이후의 학습자들은 한국어 학습 전략을 수립하여 수업 결손 등을 본인들의 자율 학습으로 보완할 줄 알게 되기 때문이다. 초급 학생들의 수업 결손이나 학습 부진을 보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서울대 한국어교육센터에서는 관련 학습을 할 수 있는 앱과 동영상 강의를 제공하고 있다. 동영상 강의는 교사가 수업한 것을 녹화하여 다시 제공하는 것이 아닌 별도의 온라인 학습 툴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현재 서울대학교 언어교육원 한국어교육센터가 제공하는 있는 온라인 학습이 가능한 앱은 다음의 두 가지이며 교내 구성원에 한하여 온라인 강의도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¹⁴

14 한국어 초급 앱과 한국어 초중급 동영상 강의는 원래 서울대 학내 외국인 구성원의 정착을 돕기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서울대 BK 사업단의 요청을 받아 제작한 것이나 한국어교육센터에서도 교수에 활용할 수 있도록 허가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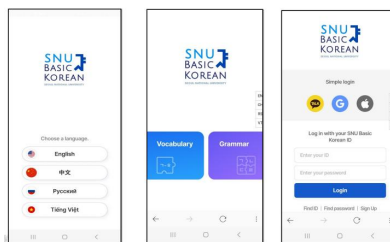


A smartphone application to help you master
'Hangeul'



한국어 초급 앱

<SNU Basic Korean>



한국어 초중급 동영상

『사랑해요 한국어 1-4』교재를 바탕으로 총 4단계로 구성



4.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발전 방안

서울대 한국어교육센터를 중심으로 한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의 다양성 검토를 통해 그간의 한국어 교육의 발전 과정을 살필 수 있었다. 지금의 발전이

과거의 노력으로 이루어졌듯이 앞으로의 발전을 위해 현재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앞으로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필자의 견해를 제시하는 것으로 본 논문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연세 어학당 초기 한국어 교수에 대한 백봉자 교수님의 회고를 보면 교수법의 체계가 갖추어 있지 않았던 시기에 학생들의 불만을 반영하여 교수법이 발전했음을 언급하고 있다. 이는 교사가 끊임없이 학생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함과 교사가 전문성이 있어야 함을 시사한다.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교사들이 학습자 요구에 귀를 기울여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에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¹⁵

다음으로는 디지털 기술의 활용이 필요하다. 코로나시대를 거치면서 본격적으로 온라인 수업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된 한국어교육계는 코로나시대의 종식 후에도 온라인 도구를 수업에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¹⁶ 정보통신기술 발달의 산물인 메타버스, 앱 기술, 챗지피티 등을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필요하다.¹⁷

끝으로 언어교육 기관들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하다. 한국어 교육 과정의 개발은 소수의 연구자의 시각에서 이루어지는 것보다 국내외 대학, 연구기관, 교육 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이루어질 때 더욱 효과적이다. 최신 연구 결과와 교육 동향을 공유하여 협력적으로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란다.

15 서울대학교 한국어교육센터에는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 수강생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위한 [소리함]이라는 메뉴를 만들어 놓았다. 교실에서 교사에게 직접 건의하지 못하는 내성적인 학습자들도 소리함을 통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16 서울대 한국어교육센터에서는 코로나시대를 지나면서 익숙해진 온라인 도구를 현재까지도 지속적으로 이용하고 있다. 비자를 주지 않는 한국어 프로그램인 저녁반과 3주 단기 프로그램을 온라인반도 개설하여 좋은 호응을 얻고 있다.

17 세종학당 수업 등 현재 메타버스를 이용해 온라인 수업을 운영하는 기관들도 늘고 있다.

- 김명광(2019),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과정론, 소통.
- 백봉자(2019), 연세 정신과 한국어 교육-한국어 교육 60년,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 54집, 연세대학교 언어교육연구원 한국어학당.
- 서울대학교 한국어교육센터(2019), 한국어교육센터 50년사, 한국문화사.
- 이선웅·이정화·서경숙(2022), 한국어 어휘 교육론 2판, 한국문화사.
- 이정화(2023), 국제한국어교육학회 제33차 국제학술대회 주제토론문 “교수법시대 이후의 교수법-서울대학교 언어교육원 한국어교육센터 특별프로그램을 중심으로”.
- Kumaravadivelu, B.(2006), Beyond Methods: Macrostrategies for Language Teaching, Yale University Press.

Diversification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Programs in Domestic Language Institutes

-Centered on the Korean Language Education Center of the Language
Education Institute (LEI), Seoul National University

LEE JUNGHWHA

This paper aims to introduce various Korean language education programs implemented in South Korea and examines their evolution over the past six decades. By delving into the history of language education in Korea, we not only observe a substantial increase in educational institutions and learners but also witness a significant diversification of education programs.

The diversification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programs can be summarized in three main directions. Firstly, there is a growing emphasis on strengthening advanced-level Korean language education programs. This is driven by an increasing number of learners dissatisfied with achieving the highest level of the TOPIK exam, level 6, and seeking proficiency beyond that level. Consequently, Korean language education programs exceeding the 6th level are being developed. Secondly, as motivations and educational purposes become more diverse, specialized Korean language education programs are being developed and operated. These programs are predominantly

carried out through collaborations with commissioned institutions, and it is noteworthy that the demands of these institutions have become more specific and diverse than before. Thirdly, in addition to regular programs, there is a noticeable surge in elective courses, apps, and online videos, responding to the need for programs that cater to specific learner requirements and bridge differences in learning abilities.

By examining the diversity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programs, this study not only provides insights into the developmental journey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but also offers considerations for future advancements in the field.

Keywords: Korean language education programs, specialized Korean language education programs, educational purposes diversify